

-(으)러

목적 — 이동 동사와 함께

어딘가에 가는 목적을 나타냅니다. 가장 큰 제약은 뒤에 올 수 있는 말입니다. 이동 동사만 올 수 있고 다른 동사는 올 수 없습니다.

■ 결합 방법

어간 종류	형태	예
받침 없음	-러	보다 → 보러 가요
받침 있음	-으러	먹다 → 먹으러 가요
ㄹ 받침	-러	만들다 → 만들러 가요
하다 동사	-러	공부하다 → 공부하러 가요
뒤에 와야 하는 말	가다, 오다, 다니다	나가다, 들어가다도 가능
시제를 붙이는 곳	이동 동사	먹으러 갔어요

■ 언제 쓰나요

기본 구조는 목적 + -(으)러 + 가다/오다: 밥을 먹으러 식당에 갔어요.입니다. -(으)러 앞의 절은 이동하는 이유이고, 뒤의 동사는 이동 자체입니다.

뒤에 올 수 있는 동사는 가다, 오다, 다니다, 나가다, 들어가다, 올라가다, 내려가다 등 이동을 나타내는 동사로 한정됩니다. 공부하러 열심히 해요는 하다가 이동 동사가 아니므로 비문입니다. 다른 동사와 목적을 연결할 때는 다음을 씁니다: -(으)려고.

결합은 기본 받침 규칙을 따르며, ㄹ은 그대로 남습니다. 만들다는 만들러가 됩니다. 어미 앞에는 시제도 부정도 들어가지 않습니다. 과거는 가다에 붙입니다: 먹으러 갔어요.

■ 예문

- 1 점심 먹으러 갈까요?
- 2 친구를 만나러 서울에 갔어요.
- 3 한국어를 배우러 학원에 다녀요.
- 4 책을 빌리러 도서관에 왔어요.
- 5 영화 보러 갑시다.
- 6 짐을 가지러 잠깐 들렀어요.

■ 비교

-(으)려고
-(으)러 뒤에는 이동 동사가 필요하지만 -(으)려고는 어떤 동사와도 쓸 수 있습니다. 어딘가에 갈 때는 둘 다 가능하며 -(으)러가 더 자연스럽습니다.
사러 갔어요. (사기 위해 갔다) / 사려고 돈을 모았어요. (사기 위해 돈을 모았다)

-기 위해서
목적을 나타내는 격식 있는 문어 표현입니다. 어떤 동사와도 쓸 수 있으며, 구체적인 불일보다 추상적인 목표에 자주 쓰입니다.
밥을 먹으러 갔어요. (일상) /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운동합니다. (격식)

-(으)로
경쟁 관계가 아니라 자주 함께 쓰이는 짝입니다. -(으)러는 목적을, 에나(으)로는 목적지를 나타내며, 한 문장에 함께 나올 수 있습니다.
밥을 먹으러 식당에 갔어요. / 밥을 먹으러 그쪽으로 갔어요.

■ 주의

- ✗ 한국어를 배우러 열심히 공부해요.
○ 한국어를 배우려고 열심히 공부해요.
공부하다는 이동 동사가 아니므로 -(으)러 뒤에 올 수 없습니다. 이동하지 않는 경우에는 -(으)려고로 바꾸세요.
- ✗ 저녁을 만들으러 집에 갔어요.
○ 저녁을 만들러 집에 갔어요.
ㄹ 받침 어간은 짧은 형태를 씁니다. 팔러, 놀러, 살러도 마찬가지입니다.
- ✗ 밥을 먹었으러 갔어요.
○ 밥을 먹으러 갔어요.
-(으)러 앞에는 시제가 오지 않습니다. 과거는 문장 끝의 이동 동사에 붙입니다.